

마을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마을, 서로 배움

마을학교, 배움과 돌봄에 대한 상상과 변주

최혜자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문화디자인자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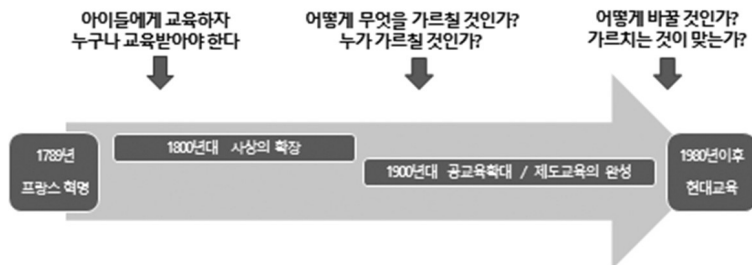
배움과 학습에 대한 것

필자는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프로젝트인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마을학교)”에 관여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 프로젝트로 마을에서 배움과 학습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삶에 기반을 둔 관계와 주체의 성장을 꿈꾸는 작은도서관의 존재와도 일정한 공감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학교 실험은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부터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삶의 문제로 바라본 교육혁신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어구는 실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은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대 교육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혁명적인 제도였습니다. 1794년 독일(프로이센)에서 공교육제도의 초기 형태가 나타난 이래, 300년 동안 보통교육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1930-40년대 여성에 대한 보통교육,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교육평등, 오늘날 저개발국가의 일반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등 보통교육은 여전히 혁명적인 구호입니다.

보통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문화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통교육은 일차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가르쳐 산업 현장의 노동력으로 사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사회권력의 이해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보통교육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실제 우리나라는 물론 초기 유럽의 국가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교육제도의 경과

마을학교 앞에 놓인 과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제도교육의 원리는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필요한 교과목의 선택, 교육 과정의 설계, 교육방법의 결정 심지어 시험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교육은 배우고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학교(장)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은 완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근대화과정에서 부모와 가정 혹은 이웃이 함께 수행하던 교육의 내용을 모두 학교가 도맡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책임은 권한에 비해 비대하고, 의무는 막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사고가 나면 부모, 사회 모두 학교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정착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때문에 마을에서 배움과 학습의 역할을 회복하고 아이들 스스로 주민이 되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만나서(상생하여) 마을에서의 교육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 아이들에게 마을이라는 일상을 돌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 다시 아이들이 마을의 작은 주민으로 자랄 수 있을까?
- 마을과 학교가 만나서 함께 마을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 본질적으로 마을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나?
- 마을학교에서는 누가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 마을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이때 마을학교를 논의한 정책자문팀³⁾에서는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 가이드를 제시하는 “전문적” 방법을 포기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 문제를 겪는 현장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8개의 마을학교 현장에서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를 구상하는 것 즉,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관계가 삶의 기반이 되는 배움과 학습의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에 기초한 문제해결이 아닌, 주체의 문제의식과 자기결정 그리고 협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체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을학교는 서울의 많은 마을-학교간의 협력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에 동의한 집단들은 공모를 위해 급조된 네트워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룹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된 마을학교에게 3개월의 계획 수립단계를 배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사업이 구성되었다는 점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을학교로 접근하는 길

마을에서 배움과 학습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 지점을 읽고 실천한 활동들이 곧 마을학교이고, 보다 광범위한 마을학교를 꿈꾸는 자원일 것입니다.

일단, 배움과 학습의 주체는 학생 혹은 청소년,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주체가 성인일

3) 각별히 이분들을 밝힙니다. 유창복, 이창환, 김영현, 박복선, 김영삼, 김지나, 심한기, 이희숙, 최혜자

경우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학생 혹은 청소년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학생이나 청소년은 마을에서 배움과 학습을 할 시간,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스스로 배움과 학습의 내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내용과 방식으로 교육받아야만 합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근대적 교육개념은 학습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학습의 주체는 온전히 학습자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제도는 교사의 역할 축소, 관계 중심의 학습설계, 학습자에 맞는 시간 배정, 다양한 접근 방식, 집단의 소수화, 학습자끼리의 궁리(窮理), 학습평가에 대한 다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시제도가 엄존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의 변화 없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학습의 근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고등학생들이 마을교사가 된 달팽이 마을학교
제공 : 달팽이 마을학교

셋째, 학생이나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는 마을과 연계되지 않은 일상의 섬입니다. 학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행위 그 자체는 물론, 가정에서 수행하던 아동 보호 및 돌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장이라는 제도적 가부장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교육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섬으로 존재할 때 교육의 권위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될 때, 학교장이 학교 건물에 대한 책임과 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마을학교는 가능하게 됩니다.

넷째, 마을에 대한 발견이 필요합니다. 마을은 생태계입니다. 물론 마을은 집과 길로 정리되고 상점마저 대규모 쇼핑몰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괴되어지는 생태계는 다른 한편 복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마을은 곧 세상(real world)입니다. 마을의 삶을 탐색하고, 아이들의 일상의 공간을 만들어갈 때 마을의 생태계는 복원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생태계적 순환 고리의 한 축을 구성하며, 스스로 마을과 일상의 주인(어린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갇힌 지식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삶의 지혜와 기획력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마을학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림> 마을생태계 속에 마을학교 활동을 녹이려는 모기동마을학교
제공 : 모기동 마을학교

마을학교는 가르치는 행위보다 배우는 행위가 우선되는 학교

마을학교는 사실 명확한 실체가 없습니다. 학교는 시스템이고 제도인데, 버젓이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비정형, 무정형의 이야기만 늘어놓으니 아직 명확한 상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마을학교의 상은 학교라는 제도의 보완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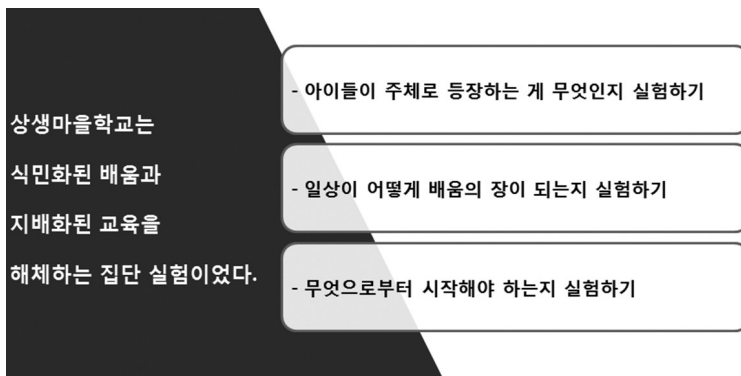
학교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왔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라기보다는 반드시 사회정치적 요구 즉, 제도화된 요구를 그것의 철학적 배경과 상관없이 수용해 왔습니다. 때로는 0교시 수업을, 때로는 방과 후 수업을, 때로는 특기적성수업을 수용해 왔으며, 그렇게 영어수업을,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을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 없이 확보된 많은 시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정치적 요구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방식과 달라지지 않은 채 마을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생태계적 이해 없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적 쿠션을 하나 더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익숙하기 때문이며, 준비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학교는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향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경제적 성취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취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성취가 행복인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갖추고 과중한 과제는 내려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을 유엔에서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간성장의 업무를 과중하게 떠안은 학교는 이러한 능력을 촉진하고 있을까요? 오로지 입시와 취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은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읽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스스로 삶에 대한 자기 기획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주변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 역량(capabilities)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량은 자기 경험과 탐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을학교 류의 실험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림> 마을학교 실험의 본질